다올 선박

2025.10.12 [792호]

DAOL 다올투자증권

재개되는 모잠비크 LNG, 삼성중공업의 FLNG 파이프라인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이준범 junebum34@daolfn.com

코멘터리 of 조선

▶ *선가 보합 계속*

① 신조선가지수는 소수점 하락했고, 중고선가지수는 지지난주 1p 상승을 토해냈습니다. 선종별 선가 변동은 없습니다.

▶ *CAPA 2배 확대 도모하는 일본: 호재이기도, 우려이기도*

② 일본 정부와 업계가 신조 생산능력을 1,800만톤으로 2배 확대하는 목표를 발표합니다. 재건을 위해 자동화, 기술투자, 인재 육성, 시장확대, 혁신을 제시합니다. 일본이 건조량을 늘리는 것은 MAGA를 바라본 대응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남아 인력 채용에 경쟁이 발생하는 점은 단점일 것입니다.

▶ *LNG 발주 기대감 계속*

③ MOL은 2028년 이후 LNG 해상 운송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0MTPA의 LNG 터미널들이 완공되기 때문입니다.

④ 미국 Commonwealth LNG가 FERC(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터미널 가동시점을 2031년으로 4년 연장을 요청합니다. 연내 FID를 목표로 하고, SPA(장기판매계약)를 5MTPA(생산능력 9.5MTPA)나 체결한 상황이어서 사업추진을 낙관합니다. 2029~2030년에 터미널 완공이 몰리는 것보다 2031년으로 밀리는 것이 한국 LNG선 건조 가능 65척을 감안할 때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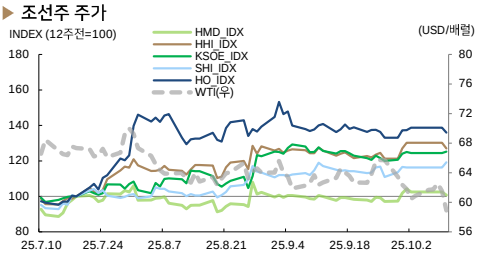
⑤ ExxonMobil이 불가항력으로 지연되어 온 모잠비크 Rovuma LNG의 FID를 다시 2026년 초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설비 개념이 현장 조립 → 모듈식으로 변경되었고, 생산능력도 기존 13MTPA → 18MTPA로 늘어납니다. 바로 옆의 Total의 Mozambique LNG 사업재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HD현대삼호와 삼성중공업의 17척 슬롯이 다시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FLNG: 지난주 Coral Norte, 이번주 Argentina LNG 진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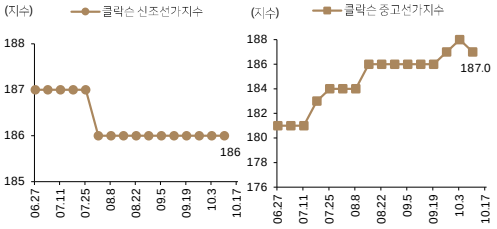
⑥ Shell과 아르헨티나 국영 YPF가 추진 중인 Argentina FLNG(6MTPA x 2기)가 FTPD(최종 기술 서명)에 도달해, 2025년말~2026년초에 FID가 기대됩니다. ENI가 운영자이고, ENI는 삼성중공업과 FLNG 2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소화해야 할 FLNG 파이프라인이 마구마구 쌓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차트

▶ 조선주 주가



▶ 선가지수



▶ 후판, 주요 선종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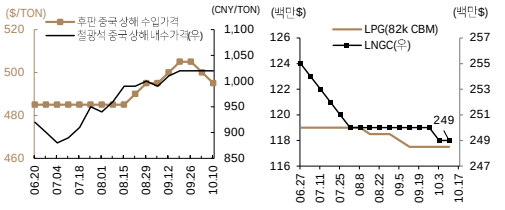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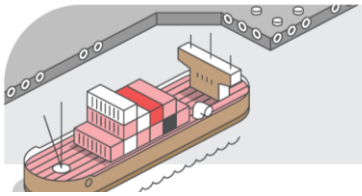
Fig. **건설, FEED 중인 LNG 사업의 최근 진척**

최근 진척	단계	국가	프로젝트명	운영자	수출CAPA. (MTPA)	가동시점	LNG선 필요 척수
FID 25년말~26년초 목표	건설중	Argentina	Argentina LNG Phase 1 FLNG 1	YPF	2.5	2027	5
FID 9월		United States	CP2 LNG Phase 1	Venture Global LNG	14.4	2027	30
		Mexico	Amigo FLNG 1	Amigo LNG	2.1	2028	3
		Mexico	Amigo FLNG 2	Amigo LNG	2.1	2028	3
		Qatar	North Field LNG Expansion Train 6	QatarEnergy LNG	7.8	2028	8
		Oman	Marsa LNG	TotalEnergies	1.0	2028	
		Canada	Tilbury Phase 1b LNG Expansion	Fortis BC	0.7	2028	
FID 8월		United States	Port Arthur LNG Train 2	Port Arthur LNG	6.5	2028	14
FTPD 10월		Argentina	Argentina LNG Phase 1 FLNG 2	YPF	3.5	2028	7
FID 8월		United States	Corpus Christi LNG Stage 3 Train 8	Cheniere Energy Inc	1.4	2028	3
FID 8월		United States	Corpus Christi LNG Stage 3 Train 9	Cheniere Energy Inc	1.4	2028	3
		Russia	Arctic LNG 2 Train 3	Novatek	6.6	2028	9
		Russia	Baltic LNG	Gazprom	13.0	2028	14
FID 10월		Mozambique	Coral North (FLNG)	Eni	3.6	2028	4
SHI 건조		Canada	Cedar (FLNG)	Cedar LNG Partners	3.3	2028	4
		United States	Rio Grande LNG Train 2	Rio Grande LNG	6.0	2028	12
		United States	Corpus Christi LNG Trains 1-9 Debottlenecking	Cheniere Energy Inc	3.2	2028	6
		United States	Rio Grande LNG Train 3	Rio Grande LNG	6.0	2029	12
2031년으로 지연		United States	Commonwealth LNG	Commonwealth LNG	9.5	2029	20
LNG 16~20척 발주 협의		United States	Woodside Louisiana LNG 1	Woodside Louisiana	5.5	2029	11
LNG 16~20척 발주 협의		United States	Woodside Louisiana LNG 2	Woodside Louisiana	5.5	2029	11
		U.A.E.	Al Ruwais LNG	ADNOC LNG	9.6	2029	10
		Qatar	North Field LNG Expansion Train 7	QatarEnergy LNG	8.0	2029	11
		Qatar	North Field LNG Expansion Train 8	QatarEnergy LNG	8.0	2029	11
		United States	Woodside Louisiana LNG 3	Woodside Louisiana	5.5	2030	11
불가항력		Mozambique	Mozambique LNG	Mozambique LNG	12.8	2030	17
FID 9월		United States	Rio Grande LNG Train 4	Rio Grande LNG	6.0	2030	12
		United States	Port Arthur LNG Phase 2	Port Arthur LNG	13.5	2030	29
SHI FEED		United States	Port Delfin 1 (FLNG)	Delfin	4.4	2029	9
FID 26년초 목표	FEE	Mozambique	Rovuma LNG	Mozambique Rovuma	18.0	2030	22
추진 발표 9월		Canada	LNG Canada Phase 2	LNG Canada	14.0	2031	15

주시 뉴스

✓ 수주, ? 수주설

	수주	10월2주 주시뉴스	수주	10월1주 주시뉴스
선가 & 생산능력		▷ 신조선가지수 소수점 하락, 중고선가지수 지지난주 1p 상승 후에 지난주 1p 하락 ▷ 일본 조선업은 생산량 18백만톤으로 2배 확대 추진		▷ 신조선가 대다수 선종 하락. 중고선가 2주 연속 상승 △ 삼성중공업, 인도 최대 조선소 Swan Defence and HI와 조선 및 해양사업 협력 MOU 체결
그린십		△ Sumitomo, 싱가포르 주롱섬에서 암모니아 벙커링 FEED 착수 △ ExxonMobil, LNG 벙커링 시장 첫 진입 공식화		▷ EPS는 암모니아 → LNG D/F로 변경
LNG		▲ MOL의 LNG 시장 전망. 2029년 이후 강한 시장 전망 ? ▲ ExxonMobil, 모잠비크 Rovuma LNG 2026년 초 FID 목표 ? △ 미국 Commonwealth LNG, LNG 수출 개시기한 4년 연장 요청		▲ 영국 Drewry 분석: 2030년까지 200MTPA에서 250여척 LNG선 수요
가스선		▲ HMM, LPG선 진입하며, 암모니아 해상운송 진출 본격화		
컨테이너선		△ 런던 해운 헤지펀드 Albemarle. 조선소 공급 제한으로 해운 사이클 길게 지속 전망	✓	▲ Capital Containers는 HD현대미포에 피더선 3척 발주
			?	△ HMM이 LNG D/F 포스트파나막스 12척. 피더 최대 12척 발주
			✓	▽ 영국 Zodiac Maritime는 중국에 6,000-TEU 5척 발주. 미드사이즈 컨테이너선 수요 급증
			?	▼ AP Moller-Maersk LNG D/F 18,000-TEU 12척 중국 2개 조선사 선택
탱커		▲ Clarksons 분석. 2026년 VLCC 인도 증가에도 시장은 '견조' 전망	✓	▲ 그리스 Adam Polemis의 New Shipping이 삼성중공업에 수에즈막스 탱커 2척 발주
			✓	△ DH조선은, 최근 10일간 수에즈막스 탱커 8척 수주
해양/디펜스		▲ ENI와 아르헨티나 YPF는 LNG 프로젝트 FID 향해 진척. 삼성중공업 수주POOL ▽ 나이지리아 최초 FLNG는 FID 앞둠. 중국 COSCO 건조	✓	△ 사우디 선사 Bahri가 자국 조선소 IMI에 벌크선 6척 발주
			?	▲ Eni는 Coral Norte FLNG 최종투자결정(F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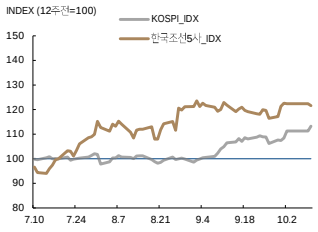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10.12 [79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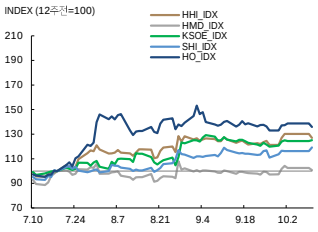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Peer Group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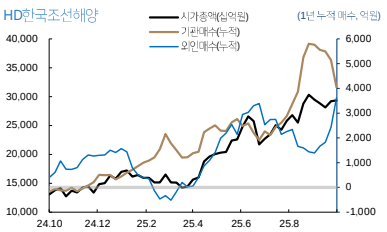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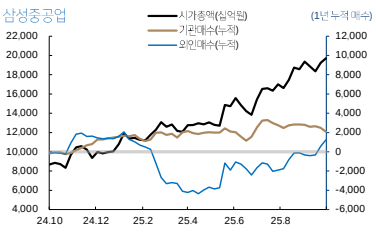


▶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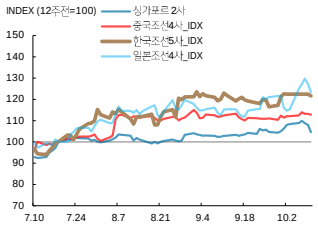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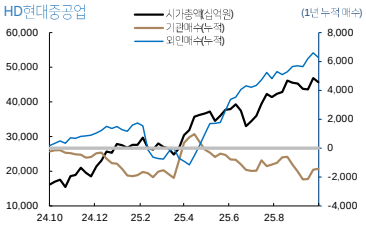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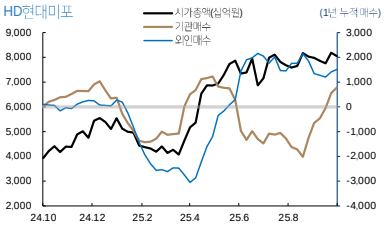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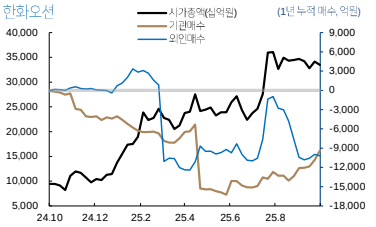


▶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지수	WTI		-3.3%	-7.5%	-12.1%		-22%	-31%
	CRB INDEX		-2.2%	-3.0%	-2.4%		1%	6%
조선사								
한국조선	HD한국조선해양	20,590	0.6%	0.1%	35.2%		124%	450%
	HD현대중공업	32,050	-2.5%	2.2%	38.4%		183%	340%
	삼성중공업	13,819	2.5%	3.9%	42.5%		127%	335%
	한화오션	23,479	-2.0%	-1.3%	49.5%		254%	578%
	HD현대미포	5,642	-1.7%	2.3%	17.2%		105%	98%
싱가포르	KEPPEL	12,730	-0.1%	6.4%	20.1%		41%	116%
중국조선	CSSC	36,859	1.0%	-8.0%	6.5%		-14%	47%
	CSIC	16,297	0.0%	0.0%	10.2%		-5%	45%
	CSSC OMEC	4,286	-0.7%	3.0%	1.0%		6%	22%
	YANGZIJIANG	10,309	1.5%	6.9%	53.8%		36%	191%
일본조선	NAMURA SB	1,686	15.3%	16.6%	22.6%		156%	581%
	MITSUI ES	3,034	6.0%	10.6%	67.3%		297%	1009%
	KAWASAKI HI	10,749	5.7%	7.5%	-3.8%		50%	313%
	SUMITOMO HI	2,841	0.9%	2.8%	14.1%		-1%	29%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925	-3.3%	-21.3%	-28.0%		26%	53%
엔진 / 부품								
엔진	WARTSILA	18,034	5.1%	2.2%	31.9%		30%	273%
한국엔진	한화엔진	2,785	-2.5%	4.2%	88.5%		227%	598%
	STX엔진	1,082	-2.8%	-16.0%	90.3%		98%	213%
	HD현대마린엔진	2,028	-3.1%	-5.6%	101.7%		331%	2104%
기자재	한국카본	1,197	-1.6%	-2.9%	43.0%		197%	195%
	동성화인텍	623	-1.2%	-8.2%	28.1%		165%	181%
	세진중공업	825	-1.0%	-20.5%	96.2%		188%	268%
	SK오션플랜트	1,031	-2.1%	-1.3%	14.0%		65%	15%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기름들								
RIG	TRANSOCEAN	3,391	-8.6%	-4.9%	11.2%		-28%	6%
	SEADRILL	1,816	-7.5%	-10.1%	0.3%		-24%	10%
	Valaris	3,329	-10.2%	-11.3%	2.9%		-12%	16%
	ODFJELL SE-A SHS	889	-5.5%	-2.4%	1.2%		-23%	70%
IOC+	ExxonMobil	472,069	-2.2%	-1.6%	-1.3%		-10%	12%
	Shell	207,105	-2.4%	-1.7%	-0.7%		4%	31%
	BP	88,333	-0.8%	-0.8%	10.9%		3%	-8%
	TOTALEnergies	128,048	-2.1%	-5.2%	-5.6%		-20%	-4%
	Chevron	304,857	-3.0%	-5.6%	0.4%		-2%	7%
	ENI	54,614	0.3%	0.0%	7.4%		4%	27%
	Equinor	60,302	-3.5%	-1.8%	-8.6%		-13%	34%
ENG.	SBM	4,360	-0.7%	-3.0%	-6.7%		24%	84%
FEED.	TechnipFMC	14,710	-5.9%	-12.5%	2.6%		29%	282%
	SAIPEM	5,665	-2.4%	2.7%	3.1%		20%	282%
	NOV	4,571	-10.1%	-5.8%	-5.9%		-25%	31%
	MODEC INC	3,528	1.6%	1.0%	17.9%		135%	428%
	WORLEY PARSONS	4,747	0.3%	-0.1%	6.8%		-1%	4%
해운								
해운	MAERSKB DC Equity	29,650	-5.5%	-8.7%	2.4%		19%	-8%
	SHIP FINANCE INTL LTD	1,003	-0.5%	-15.5%	-2.0%		-40%	6%
	CLARKSON PLC	1,424	-6.1%	0.6%	5.8%		-4%	27%
	EURONAV NV	2,860	-1.9%	-4.3%	-3.8%		-49%	64%
	GOLDEN OCEAN GROUP LTD	#N/A N/A	0.0%	0.0%	3.6%		-37%	41%
	FRONTLINE LTD	5,060	-1.9%	0.7%	30.3%		-6%	91%
	NORDIC AMERICAN TANKERS LTD	682	-3.3%	0.9%	6.8%		-12%	0%
	KNOT OFFSHORE PARTNERS LP	280	-5.8%	-8.1%	-0.0%		-24%	-6%
LPG	BW Offshore	677	-2.3%	5.7%	16.3%		12%	68%
	DORIAN LPG LTD	1,116	-9.2%	-17.2%	0.8%		-26%	75%
	EXMAR NV	961	0.2%	2.6%	13.3%		10%	0%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신조 수주(외신, 전자공시 등)

▲ ENI와 아르헨티나 YPF는 LNG 프로젝트 FID 향해 진척. 삼성중공업 수주POOL

- 아래의 해양/디펜스 섹션 참고

▼ Clarksons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HD Hyundai Mipo→Capital Ship Mgmt, CONT(2,800-TEU) 2척

ⓑHD Hyundai Mipo→Capital Ship Mgmt, CONT(1,800-TEU) 1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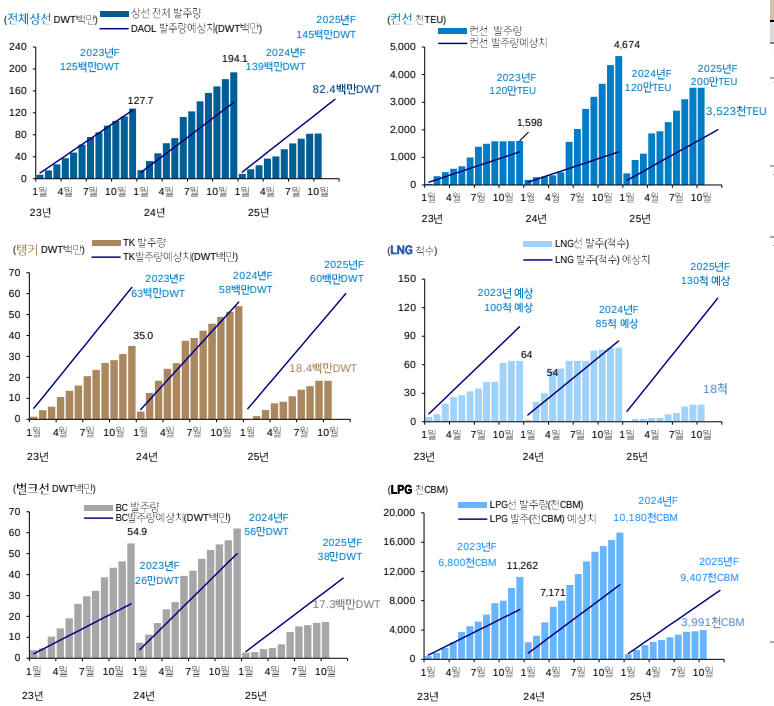
[10월1주] ▲ Capital Containers는 HD현대미포에 피더선 3척 발주
- 그리스 Evangelos Marinakis가 이끄는 Capital Containers Ship Management가 HD현대미포에 2,800-TEU급 2척, 1,800-TEU급 1척을 발주
- 2027년 하반기 인도물, 특징: 스크러버 장착, CO_2 포집설비 설치 가능 설계 스펙의 신조선가는 2,800-TEU 'Chittagongmax'RK 56.6백만달러, 1,800-TEU가 44.4백만달러
- 5월의 발주 55백만달러에서 57백만달러로 신조선가가 상승
- Capital Containers는 2025년 피더선 신규 발주를 확대하며 HD현대미포에서 총 19척 건조 중
- 현재 보유 선대는 13척으로, 2,800-TEU급 4척, 1,800-TEU급 9척. 2023~2024년 인도
- 이번 발주까지 모두 인도되면 총 32척, 2,800-TEU급 16척, 1,800-TEU급 16척의 HD현대미포 디자인 피더선 운영 예정
- HD현대미포의 신조선은 중국 건조선 대비 스피드와 연비가 15~20%가 더 좋을 것이라고 안내

ⓒSamsung HI→New Shipping, TK(157k-DWT) 2척

[10월1주[▲ 그리스 Adam Polemis의 New Shipping이 삼성중공업에 수에즈막스 탱커 2척 발주
- 158,000-DWT급, 기존연료(컨벤셔널 연료) 추진, 2028년 5월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84.5백만달러. 시장가 85백만달러 수준 유사
- 선박은 통영 소재의 HSG 성동조선에서 건조 예정
- 성동조선은 7년 전 법정관리 이후 첫 신규 수주로, 삼성중공업 지원을 통한 복귀
- 삼성중공업은 이미 중국 PaxOcean Zhoushan, 베트남 PetroVietnam Shipbuilding과 유사한 협력 모델을 운영 중
- Polemis는 2025년 7월 중국 Qingdao Beihai Heavy Industry와도 16만3,000-DWT급 유조선 2+2척 협상했지만,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무산
- 신조선가 77~78백만달러, 2028년 인도 예정물이었음
- 올해 그리스 선주들의 수에즈막스 투자가 활발. Evalend, Centrofin, Dynacom Tankers, Pantheon Tankers 등이 발주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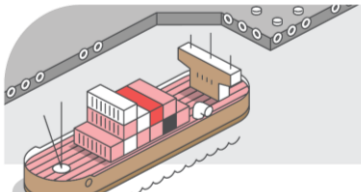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 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조선사	수주일자	발주처		선종	선형	인도	척수
2025년 09월 4주								
대한민국	Hanwha Ocean	25.09.30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8	1
		25.09.24	유럽	Advantage Tankers	TK	320k DWT	2027	1
한국	K SB (Jinhae)	25.09.22	Unknown	Unknown	PTK	50k DWT	2027	2
	DH Shipbuilding	25.09.19	유럽	Exmar	TK	157k DWT	2027~2028	4
				Advantage Tankers	TK	157k DWT	2027	2
		25.09.30	Unknown	Unknown	TK	157k DWT	2027	1
		25.09.29	Unknown	Unknown	TK	157k DWT	2027	1
중국	Hudong Zhonghua	25.07.01	아시아	PIL	CONT	9k TEU	2029	2
	Shanhaiguan SB	25.09.09	유럽	Danaos Corp	CONT	7k TEU	2027	2
	CSSC (Tianjin)	25.08.28	유럽	CMA CGM	CONT	22k TEU	2027~2028	6
	Qingdao Beihai SB	25.09.30	아시아	Chinese Mar. Trans.	BULK	210k DWT	2028	2
중국	CMHI (Shenzhen)	25.09.23	유럽	Asso Subsea	OFF-SUPP		2027	1
	Jiangmen Nanyang	25.09.30	아시아	Jinhui Shipping	BULK	65k DWT	2028	3
	Jiangsu Dajin HI	25.03.08	유럽	Leonhardt & Blumberg	BULK	6k DWT	2026~2027	2
	Jiangsu New YZJ	25.09.27	Unknown	Unknown	CONT	1k TEU	2028	1
	New Dayang SB	25.09.29	중국	JJ Shipping	CONT	1k TEU	2027	2
		25.09.22	일본	Itochu Corp	BULK	65k DWT	2028	2
	Zhejiang Donghong	25.06.01	한국	Unknown Korean	OTHERS	250k cu.ft.	2026	1
	Yangzi Xinfu SB	25.09.27	Unknown	Unknown	CONT	12k TEU	2028	2
	Taizhou Haibin	25.06.01	중국	Zhejiang Zhida Shpg	CONT	2k TEU	2026	1
	Zhoushan Qifan	25.06.01	중국	Yishun Shipping	PTK	13k DWT	2025	1
	Rizhao Kingda	25.09.22	유럽	Unknown UK Owner	OTHERS	13k DWT	2027	3
	Fujian Mawei SB	25.09.01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CONT	2k TEU	2027~2029	12
	Linhai Huipu SB	25.01.01	아시아	Phil Span Asia	CONT	1k TEU	2026	1
		25.09.01	아시아	Phil Span Asia	CONT	1k TEU	2026	1
	Yangzi-Mitsui SB	25.09.27	Unknown	Unknown	BULK	71k DWT	2028~2029	4
	Lixin Engineering	25.06.01	중국	Quanzhou Hongxu Shpg	CONT	2k TEU	2026	1
	Zhakou Shipyard	25.06.01	중국	Zhejiang Wanxin Shpg	BULK	16k DWT	2026	1
	New Jiangzhou SB	25.09.26	중국	Hunan Huahang	CONT	0k TEU	2027	1
	Jiangsu Zhenda	25.06.01	중국	Hengxiangsheng Shpg	CONT	3k TEU	2026	1
	Chizhou Tianyu SB	25.09.26	아시아	Hong Kong Word Eng	해양설치	12k DWT	2027	2
	CMI (Yangzhou)	25.08.01	유럽	SOCATRA	GASC	4k DWT	2028	2
	Ningbo Penghong SB	25.05.01	중국	Xiamen Haitao	CONT	3k TEU	2026	1
						1k TEU	2026	1
일본	Imabari SB Saijo	25.09.26	유럽	Unknown Greek Owner	TK	107k DWT	2027~2028	2
	Miura Zosensho	25.09.01	일본	Tsurumaru Shpg Co	BULK	2k DWT	2027	1
	Saiki Hvy. Ind.	25.09.01	Unknown	Unknown	BULK	40k DWT	2028	1
	Shitanoe Zosen	25.09.01	일본	AST Inc	LPG	5k cu.m.	2027	2
				Tabuchi Kaiun Kaisha	GASC	5k DWT	2027	1
		25.08.01	일본	Toda Kisen KK	LPG	5k cu.m.	2027	2
				Nakaei Kisen	LPG	5k cu.m.	2027	1
	Usuki Zosensho	25.09.01	Unknown	Unknown	GASC	20k DWT	2027~2028	2
2025년 10월 1주								
대한민국	Samsung HI	25.09.30	유럽	New Shipping	TK	157k DWT	2028	2
	HD Hyundai Mipo	25.09.29	유럽	Capital Ship Mgmt	CONT	2k TEU	2027	1
						3k TEU	2027	2
중국	GSI Nansha	25.08.01	아시아	Formosa Plastics Co	PTK	50k DWT	2028	4
	Huangpu Wenchong	25.08.30	유럽	Transocean Maritime	CONT	2k TEU	2028	2
중국	Jiangsu New YZJ	25.09.01	유럽	Pantheon Tankers	CONT	2k TEU	2028	1
	Taizhou Maple Leaf	25.03.01	유럽	Fratelli Cosulich SG	GASC	8k DWT	2027	1
	Taizhou Sanfu	25.09.01	유럽	Songa Box	CONT	3k TEU	2027~2028	2
	Jiangsu Runyang	25.07.11	중국	HICAL	OTHERS	0k LOA	2027	1
	CMJL (Nanjing)	25.09.30	유럽	Zodiac Maritime	CONT	6k TEU	2028	5
	Nantong Xiangyu SOE	25.10.02	유럽	NYKST	GASC	38k DWT	2028~2029	2
	Taizhou Jianxing HI	25.06.01	중국	Hosei Global Shpg	BULK	14k DWT	2027	1
		25.08.05	Unknown	Unknown	OTHERS	18k DWT	2027~2028	4
	New Jiangzhou SB	25.10.05	한국	DM Shipping	GASC	33k DWT	2028~2029	3
	Jiangsu Soho Marine	25.09.19	유럽	HS Schiffahrts	OTHERS	13k DWT	2027~2028	4
일본	JMU Ariake Shipyard	25.06.30	일본	Meiji Shipping	TK	300k DWT	2027~2028	2



다올 선박

선가, 실적, 생산능력

▷ 신조선가지수 소수점 하락, 중고선가지수 지지난주 1p 상승 후에 지난주 1p 하락

선종별 선가는 제자리였지만, 신조선가지수는 185.26p로 0.21p 하락했고,
중고선가지수도 지지난주 1p 상승을 토해내며 다시 187p로 하락

▷ 일본 조선업은 생산량 18백만톤으로 2배 확대 계획 추진

일본 정부와 업계가 조선 생산량을 연간 1,800만톤으로 두 배 확대하는 목표 추진 중. 구체적인 달성 시점은 언급되지 않음
수십 년간 하락세를 보인 일본 조선산업의 재도약 전략으로, 정부 주도하에 추진
미쓰비시 조선소의 CEO는 "지금이 일본 조선업 부활의 적기"라고 언급
미·중 간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이 일본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
일본 조선업 재건을 위해, 1) 자동화, 2) 기술 투자, 3) 인재 육성, 4) 시장 확대, 5) 지속적 혁신의 5대 전략을 제시
일본 조선산업 확대는 자민당(LDP) 주도 국책 사업
고바야시 다카유키(전 경제안전보장 담당 장관)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선박으로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체계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
자민당은 1조엔(약 68억달러)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조선소(National Shipyard)' 설립과 폐쇄된 조선소 재가동 정책을 검토 중
1990년대에 한국이 세계 1위 조선국으로 부상, 2000년대 이후 중국에 밀려 3위로 하락
2023년 일본 조선량은 1,005만GT로 5년간 31% 감소. 반면 중국(3,148만GT)·한국(1,835만GT)은 30% 이상 증가
일본의 조선소 인프라도 감소. 2023년 기준 도크 및 슬립웨이 수 194개 → 178개(약 8% 감소)
과거 상선 조선에서 철수한 주요 조선사는 Sumitomo Heavy Industries, Mitsubishi Heavy Industries, Mitsui Engineering & Shipbuilding, Sasebo Heavy Industries 등이 있음

▷ 일본, 조선 생산능력 '2배 확대 계획'에, 업계는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평가

일본 정부는 수십 년간 하락세였던 조선 점유율을 되살리기 위해, 연간 1,800만톤 수준으로 조선 생산능력을 2배 확대할 계획
업계 전문가들은 세계 신조선 수요가 충분히 커서, 일본의 증산 물량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SSY, Sumitomo Mitsui, Mitsubishi 등은 모두 조선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
SSY는 "코로나19 이후 선주사들의 재무구조가 매우 견조해 투입 대기 중인 자본의 벽이 존재하며,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신조 발주지로 여전히 매력적이라 언급
Sumitomo Mitsui Trust Bank는 노후선 대체 수요가 막대하여, 민간투자자·연금기금 자금을 활용한 선박금융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
Mitsubishi Shipbuilding은 조선능력 확대를 실현하려면 도쿄 인구를 지방으로 재분배해, 조선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
자동화·AI 기술 도입 가속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첨언
USTR(미 무역대표부)는 중국 조선산업을 겨냥해, 10월14일부터 Section 301 관세 부과를 시행 예정
TradeWinds Forum Tokyo에서 이 조치가 중국에서 일본·한국·인도로 발주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느냐는 주제에
Erasmus Shipinvest는 여전히 많은 신조가 중국에서 발주되고 있으며, 일부 일본 선주들도 중국에서 건조 중이라고 부정적 평가
미국의 301조 수수료는 단순한 금전문제가 아니라, 중국 중심의 조선산업 구조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신호'"라고 평가
다만 현재 선주들 상당수는 '관망(sit-and-wait)' 상태로, 10월14일 301조 시행 이후 시장 반응을 지켜보는 중
☞ 일본 조선업 부활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USTR의 중국 조선업 제재안이 잘 작동했다는 것일테니깐요.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그린십

△ Sumitomo, 싱가포르 주롱섬에서 암모니아 벙커링 FEED 착수

일본 Sumitomo Corp이 싱가포르 Jurong Island에서 연간 최소 10만톤 규모의 암모니아 벙커링 FEED 수행 예정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및 에너지청(EMA) 이 주도하는 저탄소·무탄소 암모니아 연료 및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
저탄소·무탄소 암모니아를 수입해 직접 연소하는 복합가스터빈(CCGT) 발전방식으로 55~65MW 전력 생산 가능성 검토
Keppel Ltd(싱가포르), Advario(네덜란드), Sumitomo(일본) 3사가 공동으로 2단계 FEED 연구 수행
프로젝트는 전 주기(end-to-end)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목표. 생산, 저장, 연료공급(벙커링), 발전까지 포함
2021년부터 암모니아 벙커링 상용화 기반 연구를 지속 중
싱가포르 정부는 Keppel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 추진
성공 시에 세계 최초 '직접연소형 암모니아 발전소' 중 하나가 되며, 싱가포르 최초의 암모니아 발전·벙커링 통합 프로젝트로서, 글로벌 탈탄소화 및 친환경 연료기술의 새 기준이 될 것임
1단계 예비 FEED 연구는 이미 완료됨. Keppel-Sumitomo-Advario 컨소시엄 주도
이 컨소시엄은 2022년 EMA·MPA 공모 이후 2023년 최종 6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됨

△ ExxonMobil, LNG 벙커링 시장 첫 진입 공식화

ExxonMobil이 LNGBV 2척 신조선에 용선 계약을 체결하며, LNG 벙커링(bunkering) 시장에 공식 진입
선주 Avenir LNG, Evalend Shipping의 2척이며, 각각 2027년 1분기, 2027년 4분기 인도 예정
Avenir LNG는 ExxonMobil의 자회사 SeaRiver Maritime와 대한 장기 용선계약 체결
Avenir는 20,000-CBM급 LNGBV 2척을 중국 Nantong CIMC Sinopacific Offshore & Engineering 건조 중
Evalend Shipping은 18,000-CBM급 LNGBV 4척을 HD현대미포조선 건조 중
용선기간은 약 5년, 일일 용선료 약 4만달러 이상 수준으로 알려짐
ExxonMobil은 신조선 인도 전에도 "고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완적 공급망(complementary supply solutions)을 구축 중"이라며, 조기 시장 진입 및 LNG연료 전환 고객 지원을 병행
ExxonMobil 저탄소 연료 총괄대표는 "LNG와 Bio-LNG 모두 기존 해상연료 대비 전주기 온실가스(GHG)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신조 LNGBV은 LNG와 Bio-LNG 모두 공급 가능하다고 설명
해운 연료로서 LNG 수요 증가가 기회 요인을 확인하고, 향후 LNGBV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ExxonMobil은 2025~2030년 동안 최대 300억달러 규모의 저배출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제시
이 중 약 65%는 타 기업의 배출 감축 지원 프로젝트에 투입 예정
☞ 미국 ExxonMobil인데 1척은 중국 건조입니다.

▶ LNGc

▲ MOL의 LNG 시장 전망. 2029년 이후 강한 시장 전망

일본 선사 Mitsui OSK Lines(MOL)의 CEO는 TradeWinds Shipowners Forum에서 2028년 이후 LNG 해상운송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을 제시
단기(1~2년)에는 스팟 시장이 약세를 보이겠지만, 2029년 이후 강한 시장 반등 전망
미국, 모잠비크, 카타르 등 주요 LNG 프로젝트 건설 지연 중이지만 2028~2029년부터 상업 운전 본격화되기 때문
MOL은 대부분의 LNG선이 중·장기 계약 기반으로 운영되어 단기 시장 변동 영향은 제한적
스팟 시장 약세기에 선박 매입 기회 확대를 고려 중
향후 LNG 운송뿐 아니라 upstream(가스전 개발) 및 downstream(FLNG, FSRU, FSU) 영역으로 확장 계획
MOL 소유 LNG선 3척이 러시아 화물 운송 관련해 EU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일본 정부의 지원과 협상 끝에 제재 해제
Hashimoto CEO는 "매우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정치 리스크가 높은 환경에서 더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예전에는 조선·운송 시장만 분석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정치·제재 리스크까지 포함한 정보 분석이 필수"라고 언급
MOL은 LNG 외에도 에탄, LPG, 암모니아, 수소 등 액화가스 운송 분야로 확대 계획
액화가스 산업은 기술적 공통점이 많아 MOL의 핵심 사업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

▲ ExxonMobil, 모잠비크 Rovuma LNG 2026년 초 FID 목표

ExxonMobil이 총 240억달러 규모의 모잠비크 Rovuma LNG 최종투자결정(FID)을 추진 중
전제 조건은 Cabo Delgado 지역의 치안 불안으로 인한 '불가항력(force majeure)' 해제이며, 2026년 1분기 목표
ExxonMobil Mozambique 대표는 "현재는 불가항력 해제 이후의 치안·안정 유지방안 확보에 집중 중"이라 언급
FEED(기본설계) 단계 마무리 중이며, 2026년 초 FID를 위한 입찰가 확정 목표
설비 개념이 기존 현장 조립식(stick-build) → 모듈식(modular-build), 전력원은 천연가스 → 전기 기반 구동으로 변경
LNG 연산능력은 기존보다 확대된 18MTPA. 12개 모듈, 모듈당 1.5MTPA
새로운 개념은 산업 내 최신·친환경 설계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고, 현장 위험 노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고 설명
Rovuma LNG는 미국 걸프 해안 LNG 프로젝트와 정면 경쟁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자평
TotalEnergies의 Mozambique LNG(1,300만톤/년)는 2021년부터 이슬람 반군 공격으로 Afungi 현장 불가항력 선언 상태
ExxonMobil은 TotalEnergies 및 모잠비크 정부와 협력해, 불가항력 해제 조건 충족을 위한 환경 조성 중
☞ 삼성과 HD현대의 LNG선 슬롯 17척이 다시 채워지는 호재입니다. 13MTPA에서 18MTPA로 확대되어, 필요 LNG선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 LNG선 약세장 속에서도 장기용선 협상 확산

LNG선 시장이 약세를 지속하면서, 일부 화주들이 장기용선(term charter)을 시도. 그러나 선주·중개사들은 실제 계약 체결은 많지 않다고 전함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Eni는 최대 15년 장기용선을 검토 중이며, 2028년 인도 예정 신조선까지의 '2년 브리지 계약'으로 선박 확보를 추진
브로커들은 단기 시장이 명확히 저점일 때 2년 저가 용선을 확보해두는 전략이라고 평가. 현재 겨울철임에도 용선료가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
한 브로커는 "모두가 이 Eni 입찰에 배를 던지고 있다"며 참여 열기가 높다고 언급
최근 일본 종합상사 Itochu가 Hyundai Glovis 신조 LNG선 1척을 장기용선한 것으로 전함
10~15년에 일일 용선료는 7만 후반~8만 초반달러 수준으로, 거래는 비공식(off-market)으로 체결
일부 브로커는 "너무 낮아 보도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아시아 선주들이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비판
반면 저렴한 신조선가와 한국 금융기관의 저리금융 덕분에 계산이 맞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
선주들은 시황·심리 모두 저조한 시점이라, 화주들이 저가에 장기 용선을 확보하려는 자연스러운 시도라고 설명
일부 화주들은 '조건 매트릭스(matrix)' 형태의 제안요청서를 발송해, 여러 기간·조건별 견적을 비교하여 유휴기간 부담 없이 장기계약을 체결할 최적 시점을 모색 중으로 전함
Affinity LNG 브로커지는 "중장기 프로젝트와 연계된 용선 협상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단기 약세 심리가 장기 계약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
현재 200mtpa 이상의 액화 설비(liquefaction capacity)가 건설 중이어서, LNG 해상운송 수요는 2027~2028년 이후 급등할 것으로 전망
한편, 비효율적인 증기터빈 및 구형 디젤전기 추진선의 퇴출로 선대 갱신(fleet renewal)도 본격화
MOL(미쓰이OSK Lines) CEO는 2028년 이후 LNG 해상수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 미국 Commonwealth LNG, LNG 수출 개시기한 4년 연장 요청

미국 Commonwealth LNG가 FERC(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LNG 수출터미널 가동기한을 4년 연장(2027 → 2031년 말)해달라고 공식 요청
기존 승인(2022년)에서는 2027년 11월까지 수출 개시 조건이었음
연장 사유는 FERC 승인에 대한 환경단체의 법적 소송, 미 에너지부(DoE)의 인허가 지연 등의 사업자의 통제 밖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
환경단체의 제소로 인해 미 항소법원이 FERC 승인 재심의 명령했고, FERC가 2025년 6월 재인가 결정한 바 있음
DoE 인허가는 2019년 신청, 2020년 FTA 체결국 대상 수출 허가만 승인, 비FTA 국가 수출 허가는 2025년에야 승인 완료
FERC의 가스 인프라 건설 규제와 DoE의 에너지 수출 승인의 이원적 절차가 사업 지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
Commonwealth는 상업적 추진력이 충분하다며 연장 정당성을 주장
SPAs(장기판매계약) 체결 현황은 Petronas(말레이시아), Glencore(스위스), JERA(일본), EQT(미국)로부터 전체 설비 계획 9.5MTPA의 약 절반인 5MTPA에 달함
EPC는 Technip Energies 담당하고, 냉매 압축기 Baker Hughes(가스터빈 구동형) 공급 계약을 체결
2025년 9월에 FERC가 루이지애나 현장 내 초기 부지 준비 공사 착수 승인했고
운영사 Kimmeridge Energy는 연내 FID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
DoE 제출 문서에 따르면, 첫 수출은 2029년 목표로, 잠재 고객과 상업협상을 진행 중
트럼프 행정부의 DoE는 LNG 산업에 친화적 기조를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규제를 완화
LNG 프로젝트의 수출 개시 유예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고, 공사 착공 요건도 완화
업계는 이를 "LNG 개발에 유리한 제도환경 복원"으로 평가

▲ LNG선 발주. 3Q25 10척으로 상반기 6척보다 많음

2025년 3분기에 LNG선 10척이 새로 발주되어, 상반기(1~6월)의 6척을 넘어섬
주요 발주는 Celsius Shipping(덴마크)-삼성중공업 LNG선 2척, George Economou(그리스)-삼성중공업 4척
GasLog(그리스)-한화오션 총 2척, Hanwha Shipping-한화오션 2척
LNG선 인도 시점은 대부분 2028년 이후 슬롯(slot) 확보 목적
향후 추가 발주 가능성은, 1) Capital Gas - HD현대중공업 및 중국 조선소 잔고(berth) 비교하며 신규 LNG선 대규모 발주 검토 중
2) Equinor(노르웨이)도 최대 4척 규모 LNG선 신규 발주 입찰 진행 중
3) Mozambique LNG 프로젝트에서 총 17척 잠재 수요가, 모잠비크 정부의 보안 문제 해소로 연내 FID(최종투자결정) 가능성

△ 한화오션, 세계 최초 시운전 중 LNG선 사이 STS(Ship-to-Ship) 성공

한화오션이 시운전 중 LNG선 2척 사이에서 LNG를 직접 이송(STS) 하는 세계 최초 사례를 달성
이번 시험은 옥포조선소 앞바다에서 수행. 참여 선박은 174,000-CBM급 Maran Gas Syros와 GasLog의 최근 인도된 Woodside Jirrubakura
통상 LNG선은 시운전 시 육상 LNG 터미널에서 LNG를 적재한 뒤, 시험 종료 후 남은 LNG를 다시 터미널로 반환해야 함
이 과정에서 터미널 혼잡 또는 일정 지연이 자주 발생
한화오션의 혁신적 STS 시운전 방식은, LNG를 터미널이 아닌 다른 시운전 중인 LNG선으로 직접 이송 가능
이를 통해, 1) 시운전 효율성 및 유연성 대폭 향상, 2) 터미널 정체 해소 및 일정 지연 위험 감소, 3) 환경적 영향 저감(재적재·이송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가스 방출 최소화)
한화오션은 이미 조선소 내 LNG선 간 STS 벙커링(급유) 작업을 세계 최초로 수행한 경험 보유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 HMM, LPG선 진입하며, 암모니아 해상운송 진출 본격화

HMM이 LPG선 시장에 진입하며, 향후 청정 암모니아 운송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을 밝힘
2024년 말 기준 HMM은 LPG선 보유 '0척'이었으나, 2025년 1분기에 처음으로 40,000-CBM Guadalupe Explorer(2022년 건조)를 인수
추가로 동형선 2척(HD현대미포 조선소 건조, 2023년 인도)이 HMM 선대에 추가된다고 전언
척당 6,950만달러 수준이며, 타임차터(backed by charter) 기반 거래로 추정
매도자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Trafigura(상품 트레이더)가 관리하고, BoCom Leasing(Bank of Communications Financial Leasing)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
HMM은 SK해운 인수 협상을 통해 LPG선 확보를 모색했으나, 2025년 8월 한앤코(Hahn & Co.)와의 가격 합의 실패로 협상 결렬
HMM은 2030년까지 LPG/암모니아 겸용선 10척 확보 목표를 설정하며, 올해 초 LPG 및 암모니아 운송사업 재개를 공식화한 바 있음
청정 암모니아 해상운송(clean ammonia maritime transportation)으로의 확장하기 위함
2030년까지 LPG/암모니아선 10척 확보를 목표로, 국내외 운항 네트워크 강화 계획
이번 진입은 탄소중립·친환경 화물운송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다각화(diversification) 전략의 일환
현재 HMM 선대 구성(2025년 8월 기준)는 자사 보유선 100척, 용선선 34척
보유선 100척 중 컨테이너선 64척과 벌크선·탱커·다목적선·LNG선으로 구성
용선선 34척은 컨테이너선 24척, 나머지 10척은 벌크선·탱커

▶ 컨테이너선

N/A

▶ 탱커

▲ Clarksons 분석. 2026년 VLCC 인도 증가에도 시장은 '견조' 전망

Clarksons Research는 2026년 약 33척의 VLCC 인도 예정에도 불구하고, 탱커 시장의 공급 증가 폭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긍정적 전망 제시
2026년 전체 원유운반선 선대(fleet)는 +2.5% 증가 예상이고, 중국의 비축 수요(stockpiling) 확대 시, 수요 측면에서 상방 요인 존재. D/F VLCC 인도 증가 영향도 제한적
BRS Shipbrokers는 VLCC 시장이 이는 아시아 정유소 정기보수 기간에 원유 수출 증가로 단기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
단, VLCC 인도 속도 가속화로 인한 하방 압력 가능성도 지적. '인도 지연(slippage) 포함 시, 2026년 인도 예상 선박 수는 총 33척
2025년 9월 말 기준 VLCC 평균 일운임 $68,000/일, 연평균은 $42,148로 2024년 평균($43,172)에 근접
전체 탱커 일운임 평균 $39,294으로 전년 대비 +62%이며, 최근 10년 평균 대비 최고 수준 기록
제품운반선(PC선) 시장도 균 $22,000/일 수준 유지하며 견조
원유운반선은 2025년에 원유 수송 수요(DWT 기준) +1.4% 증가 전망하는데 반해, 공급 증가율은 +0.6%에 불과
VLCC 수요 +3%, 공급은 정체. 시장 타이트 지속. '제품운반선은 2026년 선대 증가율 +5.9%로 큼
이 중 LR2급 일부는 더티 트레이드로 전환해도, 나머지 클린탱커는 4% 성장 vs. 반면 정유제품 수송(tonne-mile)은 +1%에 그쳐 공급 과잉 위험 존재
Clarksons은 2025년 하반기~2026년 초까지 탱커 시장 강세 유지 가능성 높다고 전망
OPEC+ 증산, 중국 원유 수입 2.2% 증가(1~8월 기준), 미국-아시아 간 장거리 항로 확대 등이 운임 상승에 기여
단기적으로는 원유 부문이 PC선보다 더 강한 모멘텀 유지 전망

▽ 부산 DM Shipping, 중국에 첫 PC선 신조 발주

부산 소재 DM Shipping이 중국 Jiangxi New Jiangzhou Shipbuilding에 33,000-DWT 스테인리스 PC선 3척을 발주
메탄올 D/F, 2028~2029년 인도물의 척당 신조선가는 56백만달러 수준
본 계약은 DM Shipping의 중국 조선소 첫 발주 사례로, New Jiangzhou 조선소가 한국 시장에 진입한 첫 수주이기도 함
Jiangxi New Jiangzhou Shipbuilding은 2023년 3월 설립된 신생 조선소로,
모기업은 Jiangsu Yangchuan Investment Development (Singapore 상장 Yangzijiang Financial 자회사)와 Qinshi Group
선형은 조선소 자체(in-house) 설계, 선급은 한국선급(KR)
Jiangxi New Jiangzhou은 과거 Jiangzhou Union Shipbuilding으로 2018년 재정난으로 폐업 후 2023년 재출범
현재 잔고 27척(이번 DM 계약 제외) 보유. 절반 가까이가 PC선 나머지는 다목적선(MPP)
DM Shipping은 화학운반선(PC선) 전문 선사로, 5,600~20,000-DWT 15척 보유. 운항 구역은 극동, 호주, 남미

▶ 오프쇼어/윈드/디펜스

▲ ENI와 아르헨티나 YPF는 LNG 프로젝트 FID 향해 진척. 삼성중공업 수주POOL

아르헨티나 국영기업 YPF가 500억달러 규모 Argentina LNG(Shell, YPF의 50:50 합자) 개발 위해
이탈리아 Eni와 '최종 기술 프로젝트 설명서(FTPD, Final Technical Project Description) 서명. 이는 12MTPA LNG 액화/수출 프로젝트의 FID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
Eni와 YPF는 2025년 4월에 MOU를 체결하고, 6월에 Argentina LNG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
2025년 말~2026년 초 FID 확정을 목표로 제시하며, Shell과 YPF는 2025년 12월에 FEED에 착수 예정
초기 단계는 Upstream 개발, 운송, 6MTPA의 FLNG 2기
아르헨티나의 Vaca Muerta 셰일층(YPF 지분 50% 이상)에서 가스를 공급받아 2032년까지 총 30MTPA의 LNG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함
ENI는 콩고-브라자빌, 모잠비크 FLNG 경험이 프로젝트 수행에 이상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언급
아르헨티나 대통령과도 회동해, 현지 내 Eni의 기존 및 잠재적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논의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2개의 FLNG 프로젝트가 병행 중. 1) 이번 Argentina LNG
2) 다른 하나는 Southern Energy 프로젝트로, YPF가 Harbour Energy, Pan American Energy, Pampa Energia, Golar LNG와 협력 중
☞ 삼성중공업 Delfin 시리즈, Golar MK III와 아르헨티나의 또 ENI FLNG 때문에 아주 바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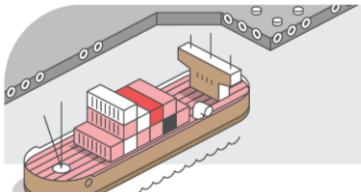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 최초 FLNG는 FID 앞둠. 중국 COSCO 건조

나이지리아 최초 FLNG 프로젝트가 이번 주 가스 공급 계약 체결로 최종 투자결정(FID) 임박
UTM FLNG Project이며, 2.14MTPA, OML 104 Yoho 유전. 지분구조는 UTM Offshore 72%, NNPC 20%, Delta 주정부 8%.
라고스의 UTM Offshore는 국영 NNPC와 Seplat Energy로부터 Yoho 유전(OML 104)의 가스를 공급받는 '가스 판매·구매계약(WGSPA)'을 10월 10일 체결 예정
하루 2억 입방피트(200 MMcf/d) 가스 및 콘덴세이트 공급, 계약 기간: 15년
본 계약은 프로젝트의 상업성을 확보한 후, 향후 자금 조달·건설·LNG 판매 협상으로 이어질 예정
중국 COSCO 조선소가 건조 예정이며, 2029년 4분기 인도 목표
2021년에 예비 FEED(Pre-FEED) 완료했고
2023년 10월에 JGC와 Technip Energies가 FEED 완료. KBR은 Owner's Engineer로 참여
2024년에 나이지리아 중·하류 석유청(NMDPRA)**으로부터 건설 허가 취득했고, 현지 콘텐츠(Local Content) 계획 승인 획득
☞ 삼성중공업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현지 합자 조선소가 있는데 말입니다.

▶ 기타

△ 런던 해운 헤지펀드 Albemarle. 조선소 공급 제한으로 해운 사이클 길게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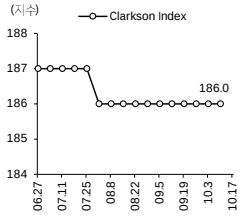
런던 소재 Albemarle Shipping Fund는 운용자산 2억8,500만달러, 2025년 들어 23% 수익률 달성 중. 2019년 1월 출범 이후 누적 수익률 520%(연평균 31%)
Trump 행정부의 관세 완화("tariff liberation") 발표 이후, 해운주 변동성이 급등하자 오히려 기회로 활용
운용 방식은, 상장 해운주, 원자재 파생상품, FFA(선박운임선도계약)에 롱/쇼트 포트폴리오 운용
보유 종목 20~30개, 순익 포지션 범위 -50%(순쇼트) ~ +100%(순롱). 현재 약 70% 순롱(net long)
섹터별 포지션 현황은 탱커 +45% 롱. 8~9월 VLCC 운임 비수기 급등, 시장 재관심 유발
드라이벌크 +25% 롱. 점진적 회복세(sector screens very cheap), 향후 꾸준한 개선 예상
컨테이너선 -25% 쇼트. 운임이 2023년 말 이후 최저, 2027년까지 하락 지속 전망하다가 2028년 이후 개선 가능성
펀드의 장기 사이클 시각에서 "조선소의 생산능력이 핵심 변수". 해운 시황의 핵심 요인으로 조선소 생산능력(shipyard capacity)을 지목.
조선소의 생산여력·이익률이 신조선가(newbuilding price)를 결정하고, 신조선가가 장기 운임과 중고선가(secondhand value)를 규정하기 때문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므로, 이번 해운 사이클은 과거보다 길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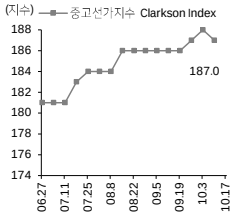
다올 선박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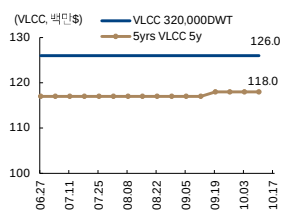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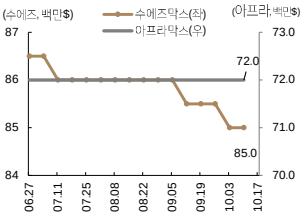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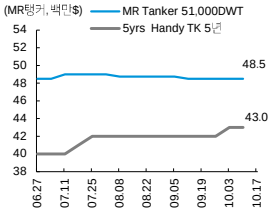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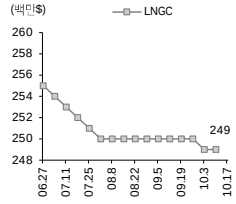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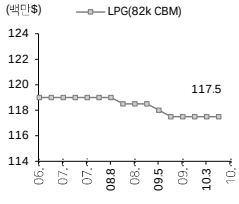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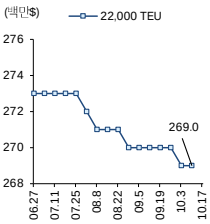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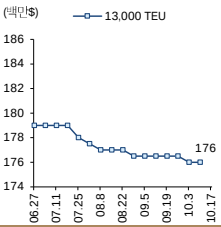
가스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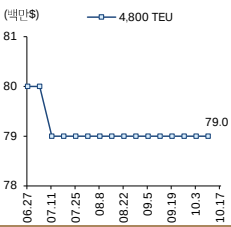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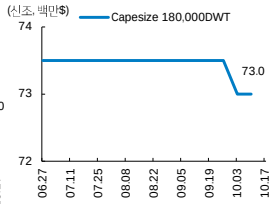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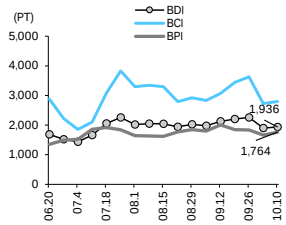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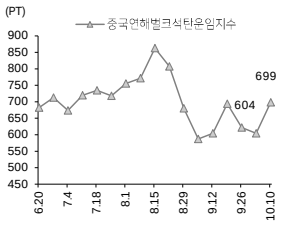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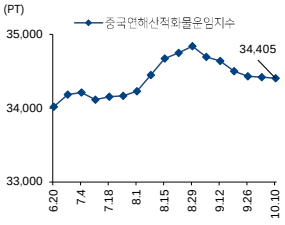
운임지수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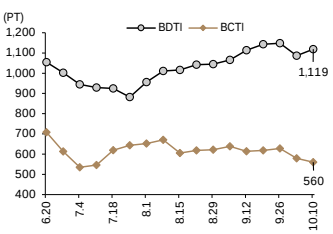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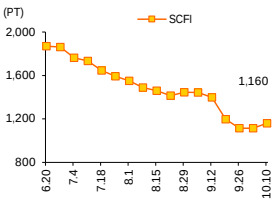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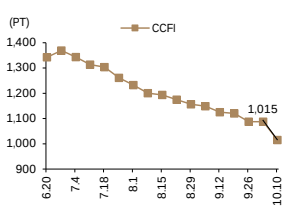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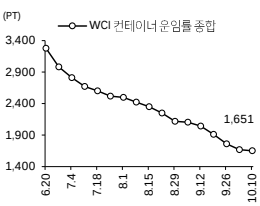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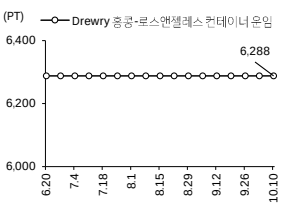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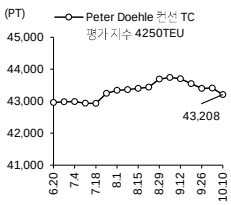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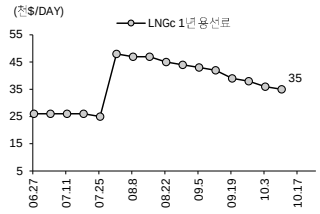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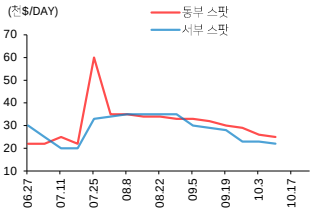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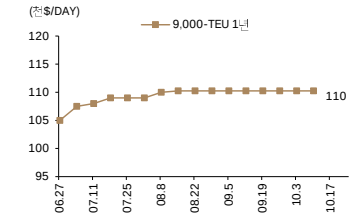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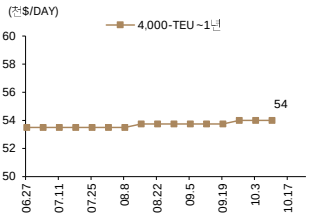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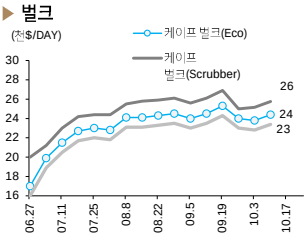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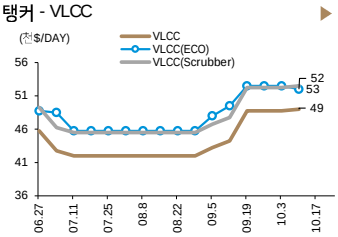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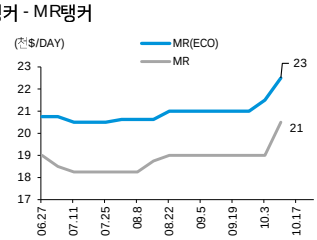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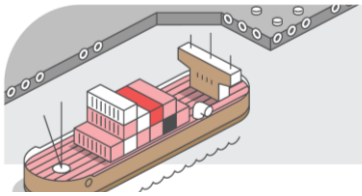


탱커 - VLCC



탱커 -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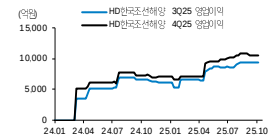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10.12 [79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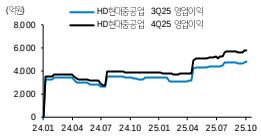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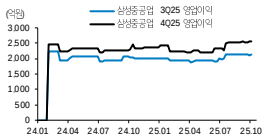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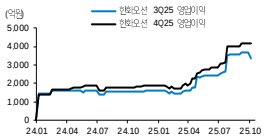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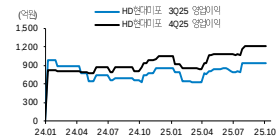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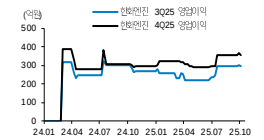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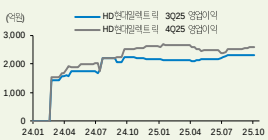
▶HD현대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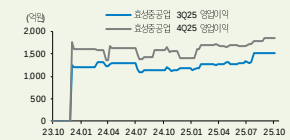
▶한화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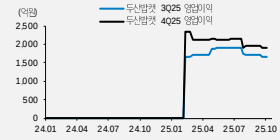
▶HD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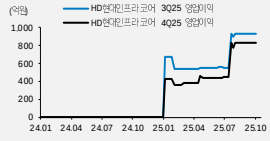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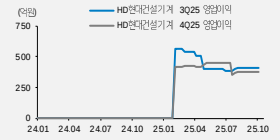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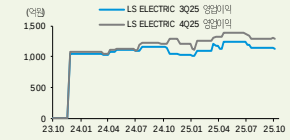
▶HD현대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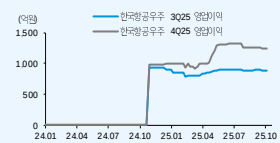
▶HD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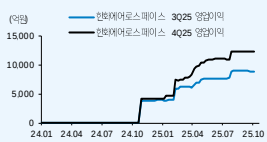
▶LS Elec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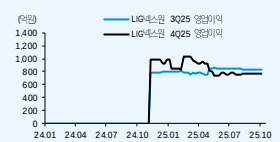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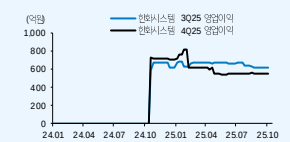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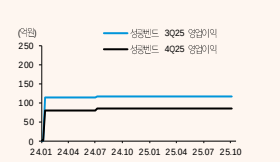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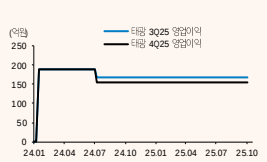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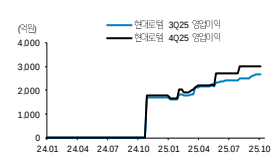
▶성광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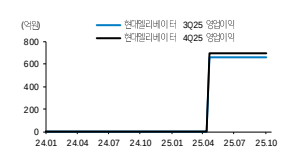
▶태광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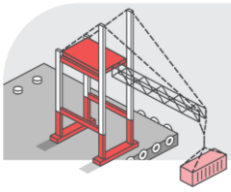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25 EPS(원)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5.09.13	25.09.20	25.09.27	25.10.04	25.10.10	Change(%)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VALUATION 2025 PER	종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27,899**	31,535	31,410	**32,249**	31,502	31,864	31,864	31,864	**32,130**	0%	2%	12.9	415,000
	HD현대중공업	**13,298**	14,843	15,034	**14,605**	14,628	14,628	14,628	14,973	**15,032**	3%	3%	34.3	515,000
	삼성중공업	**568**	567	559	**700**	711	716	724	747	**752**	7%	6%	29.8	22,400
	한화오션	**1,680**	2,471	2,515	**3,112**	3,181	3,181	3,181	3,192	**3,157**	1%	-1%	34.6	109,300
	HD현대미포	**5,955**	6,055	6,180	**6,138**	6,057	6,057	6,057	6,049	**6,026**	-2%	-1%	33.4	201,500
조기	한화엔진	**984**	982	984	**1,166**	1,166	1,166	1,166	1,183	**1,165**	0%	0%	40.8	47,600
	STX엔진	**648**	648	648	**648**	1,304	1,304	1,304	1,304	**1,304**	101%	0%	29.5	38,450
	HD현대마린엔진	**1,241**	1,277	1,221	**1,613**	1,706	1,706	1,706	1,735	**1,735**	8%	2%	49.2	85,300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6,873**	5,665	5,992	**4,864**	4,896	4,896	4,896	4,896	**4,896**	1%	0%	19.7	96,600
	HD현대인프라코어	**755**	736	743	**924**	913	913	913	913	**913**	-1%	0%	16.8	15,300
	두산밥캣	**5,810**	5,459	5,467	**5,124**	5,124	5,124	5,054	5,054	**5,054**	-1%	-1%	11.3	57,100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632**	521	495	**452**	448	448	447	445	**444**	-2%	-1%	167.9	74,500
	HD현대일렉트릭	**18,955**	18,905	18,765	**18,693**	18,732	18,732	18,795	18,795	**18,823**	1%	0%	35.1	660,000
	LS ELECTRIC	**10,920**	11,083	11,164	**10,010**	10,010	10,010	10,011	10,017	**10,005**	0%	0%	30.2	302,000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2,702**	2,505	2,520	**2,668**	2,670	2,670	2,650	2,630	**2,630**	-1%	-1%	40.7	107,0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6,587**	34,787	35,208	**31,478**	31,537	31,537	32,830	32,830	**32,830**	4%	4%	31.7	1,042,000
	LIG넥스원	**11,823**	13,371	13,440	**14,020**	14,472	14,472	14,368	14,368	**14,368**	2%	-1%	33.4	480,000
	한화시스템	**1,105**	1,036	1,023	**1,004**	990	990	990	990	**990**	-1%	0%	58.5	57,900
	현대로템	**6,218**	6,859	7,017	**7,227**	7,271	7,275	7,380	7,380	**7,380**	2%	1%	29.8	220,000
	현대엘리베이터	**6,840**	6,840	6,840	**8,552**	8,552	8,552	8,552	8,552	**8,552**	0%	0%	9.6	81,900
피팅	성광벤드	**1,932**	1,901	1,844	**1,659**	1,551	1,551	1,551	1,496	**1,442**	-13%	-3%	23.3	33,650
	태광	**1,959**	1,959	1,879	**1,547**	1,592	1,592	1,592	1,663	**1,702**	10%	7%	16.8	28,650
	하이록코리아	**3,644**	3,644	3,644	**3,644**	3,644	3,644	3,985	3,804	**3,804**	4%	4%	9.5	36,100

그룹	종목	2025 BPS(원)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5.09.13	25.09.20	25.09.27	25.10.04	25.10.10	ROE 2025	2026	VALUATION 2025 PBR
조선	HD한국조선해양	**178,961**	182,430	182,230	**182,067**	181,054	181,475	181,475	181,475	181,344	18%	23%	2.3
	HD현대중공업	**74,335**	75,568	75,858	**75,374**	75,409	75,409	75,409	75,783	75,602	20%	31%	6.8
	삼성중공업	**6,057**	6,122	6,121	**6,270**	6,256	6,239	6,262	6,268	6,218	12%	17%	3.6
	한화오션	**17,125**	18,408	18,458	**19,025**	19,077	19,077	19,077	19,088	19,050	17%	20%	5.7
	HD현대미포	**56,512**	56,529	56,618	**56,381**	56,356	56,356	56,356	56,348	56,303	11%	18%	3.6
조기	한화엔진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22%	29%	8.0
	STX엔진	**8,298**	8,298	8,298	**8,298**	8,860	8,860	8,860	8,860	**8,860**	15%	58%	4.3
	HD현대마린엔진	**10,818**	10,966	11,157	**11,084**	11,040	11,040	11,040	11,090	**11,090**	16%	30%	7.7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101,021**	100,299	100,299	**101,144**	102,916	102,916	102,916	102,916	**102,916**	5%	9%	0.9
	두산밥캣	**72,118**	73,000	73,206	**75,292**	75,292	75,292	75,569	75,569	**75,569**	7%	7%	0.8
	HD현대인프라코어	**10,307**	10,174	10,174	**10,668**	10,668	10,668	10,668	10,668	**10,668**	9%	12%	1.4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12,683**	12,675	12,447	**12,463**	12,428	12,428	12,427	12,426	**12,424**	4%	6%	6.0
	HD현대일렉트릭	**55,777**	55,634	55,342	**54,834**	54,878	54,878	54,945	54,945	**54,928**	34%	37%	12.0
	LS ELECTRIC	**69,852**	69,740	69,459	**68,409**	68,409	68,409	68,409	68,414	**68,347**	15%	18%	4.4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19,915**	19,646	19,666	**19,720**	19,668	19,668	19,638	19,627	**19,627**	13%	19%	5.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7,450**	163,704	168,701	**164,645**	166,452	166,452	170,261	170,261	**170,261**	19%	24%	6.1
	LIG넥스원	**56,175**	66,155	66,201	**66,526**	66,674	66,674	66,548	66,548	**66,548**	22%	25%	7.2
	한화시스템	**14,282**	14,059	14,015	**15,304**	15,469	15,469	15,469	15,469	**15,469**	6%	8%	3.7
	현대로템	**24,912**	25,380	25,474	**25,678**	25,713	25,930	26,203	26,203	**26,203**	28%	31%	8.4
	현대엘리베이터	**35,782**	35,782	35,782	**39,414**	39,414	39,414	39,414	39,414	**39,414**	22%	23%	2.1
피팅	성광벤드	**21,228**	22,155	21,956	**21,579**	21,466	21,466	21,466	21,460	**21,400**	7%	9%	1.6
	태광	**23,633**	23,633	23,633	**22,839**	23,022	23,022	23,022	23,056	**23,128**	7%	9%	1.2
	하이록코리아	**37,176**	37,176	37,176	**37,176**	37,176	37,176	40,346	39,135	**39,135**	10%	11%	0.9

출처: Dataguide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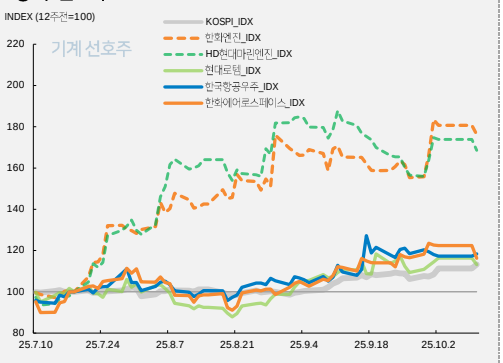
2025.10.12 [792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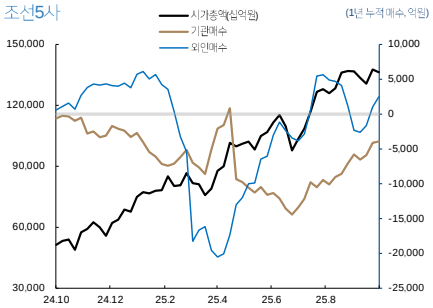
▶당사 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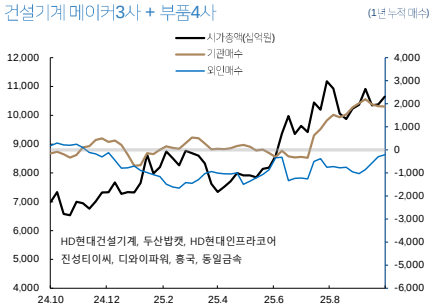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인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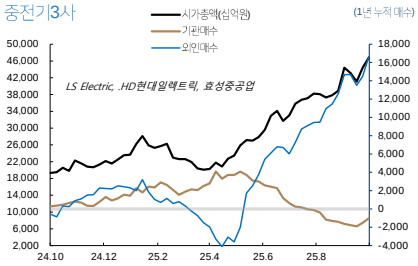
조선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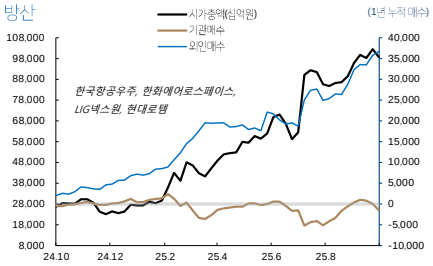
건설기계 메이커3사 +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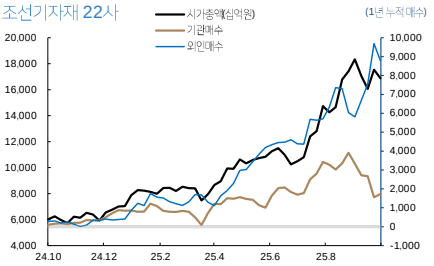
중전기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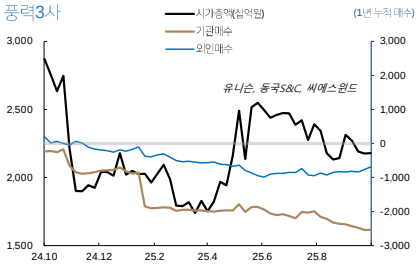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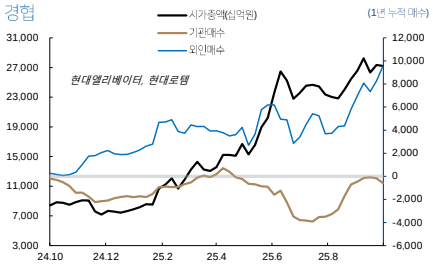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2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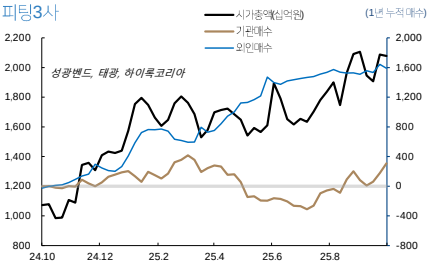
풍력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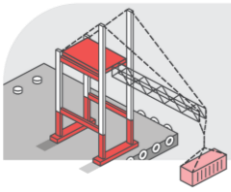


경협



피팅3사





다올 기계 ChartBook

2025.10.12 [792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1,175	3.4%	1.6%	26.6%		79%	187%
	HD현대인프라코어	2,026	3.5%	-1.0%	31.9%		105%	230%
	두산밥캣	3,837	2.0%	4.8%	5.2%		42%	92%
대형	CATERPILLAR	230,164	-1.3%	16.2%	23.5%		22%	176%
	KOMATSU	33,339	2.6%	2.6%	12.5%		30%	97%
	HITACHI CM	6,603	-1.9%	-4.5%	9.4%		32%	73%
	VOLVO	57,027	-3.2%	-2.1%	1.8%		0%	60%
중국	SANY	27,267	-1.2%	8.6%	25.9%		28%	57%
	XCMG	18,430	-2.7%	13.4%	38.7%		50%	147%
소형	DEERE	120,662	-3.6%	-5.3%	-14.3%		9%	25%
	CNHI	12,633	-7.4%	-10.1%	-26.2%		-10%	-16%
	TAKEUCHI	1,681	3.2%	-2.3%	12.6%		11%	88%
	TEREX	3,311	-4.1%	-3.9%	1.4%		-9%	58%
	SUMITOMO HI	2,841	0.9%	2.8%	14.1%		-1%	29%
	SANDVIK	35,120	-1.1%	7.5%	20.1%		21%	70%
	UNITED RENTALS	61,126	-3.1%	0.6%	19.9%		16%	243%
건설기계	디와이파워	94	-0.8%	-5.5%	-3.1%		-4%	20%
부품	진성티이씨	206	4.7%	-0.2%	23.6%		51%	45%
	우림기계	55	17.4%	9.0%	16.2%		7%	-12%
	흥국	43	-1.3%	-3.0%	-6.7%		0%	-1%
	동일금속	51	-0.2%	-2.2%	-4.3%		-9%	-65%
	KUBOTA	14,389	-1.0%	4.7%	16.3%		-10%	-6%
	가야바	1,271	-3.3%	-4.3%	25.8%		58%	138%
	Hengli	18,465	2.6%	12.1%	42.2%		67%	104%
방위산업 / 항공부품								
방산/항공	한국항공우주	7,312	0.9%	10.5%	26.3%		103%	15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7,666	-5.0%	7.8%	33.8%		197%	1704%
	LIG넥스원	7,403	-5.0%	-3.4%	-2.1%		98%	435%
	한화시스템	7,668	-3.2%	8.0%	11.6%		223%	444%
	아스트	148	-1.3%	-5.1%	-6.4%		-11%	-86%
	퍼스텍	163	3.8%	8.6%	27.3%		69%	60%
	하이즈항공	29	-3.5%	-6.1%	19.9%		22%	-19%
	오르비텍	69	8.4%	-3.0%	-12.2%		54%	-27%
방산/항공	Boeing	159,345	-2.6%	-7.4%	-2.4%		40%	58%
	Airbus	185,744	-0.8%	7.1%	15.2%		52%	109%
방산	LOCKHEED MARTIN	117,912	0.1%	8.9%	9.2%		-16%	30%
	Raytheon Technologies	211,088	-5.3%	1.7%	8.2%		27%	91%
	Northrop grumann	89,273	2.3%	7.5%	23.7%		18%	34%
	GENERAL DYNAMICS	89,559	-3.1%	3.1%	13.0%		11%	51%
항공	BOMBARDIER	13,615	-5.9%	19.1%	23.5%		70%	568%
	EMBRAER	10,374	-2.3%	-5.6%	-8.2%		72%	556%
항공 부품	ROLLS ROYCE	127,920	-2.6%	3.5%	18.3%		112%	1525%
	SAFRAN	146,173	-1.9%	5.8%	10.2%		45%	191%
	SPIRIT AERO	4,464	-2.0%	-6.3%	-1.8%		21%	61%
	TRIUMPH	#N/A N/A	0.0%	0.0%	0.7%		73%	212%
	MHI	89,666	9.4%	8.0%	18.9%		83%	735%
	KHI	10,749	5.7%	7.5%	-3.8%		50%	313%
	FHI	14,754	4.2%	-2.1%	21.8%		18%	34%
	IHI	20,088	10.8%	24.5%	34.1%		143%	531%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풍력	씨에스윈드	1,265	0.1%	-0.1%	-11.0%		-30%	-32%
	SK오션플랜트	1,031	-2.1%	-1.3%	14.0%		65%	15%
	세진중공업	825	-1.0%	-20.5%	96.2%		188%	268%
	유니슨	169	1.7%	8.2%	-27.5%		62%	-30%
	동국S&C	93	-2.1%	-1.9%	-21.5%		-14%	-54%
	태웅	466	4.6%	-6.5%	9.8%		135%	229%
	VESTAS	20,960	6.5%	7.5%	19.7%		-2%	-5%
	GOLDWIND	9,195	6.5%	31.1%	61.2%		62%	31%
	NORDEX	6,515	4.9%	11.4%	31.6%		79%	193%
중전기	LS Electric	6,351	4.1%	-2.1%	15.3%		91%	527%
	효성중공업	9,792	6.1%	7.5%	68.5%		302%	2679%
	HD현대일렉트릭	16,679	5.6%	17.9%	52.8%		114%	1882%
	ABB	134,139	-0.6%	3.0%	24.6%		17%	128%
	Schneider	164,270	-1.8%	7.1%	10.5%		2%	101%
	WEG	28,053	0.8%	-1.6%	-14.7%		-32%	12%
	Crompton Greeves	2,088	-2.5%	-9.5%	-19.0%		-33%	-25%
	TBEA	13,900	10.3%	35.3%	61.3%		45%	12%
피팅	성광벤드	626	1.1%	-4.7%	17.2%		147%	138%
	태광	532	4.6%	0.2%	50.7%		109%	81%
	하이록코리아	298	0.0%	-6.5%	26.7%		44%	85%
발전	두산에너빌리티	33,455	15.0%	19.0%	24.2%		312%	469%
	비에이치아이	1,171	12.3%	2.7%	46.1%		576%	757%
	S&TC	812	5.3%	-8.8%	59.5%		351%	780%
	DONGFANG	9,881	7.8%	9.9%	24.9%		42%	-6%
	BHEL	9,402	-2.0%	8.9%	-7.9%		-11%	290%
	MHI	89,666	9.4%	8.0%	18.9%		83%	735%
	IHI	20,088	10.8%	24.5%	34.1%		143%	531%
	SIEMENS	223,717	0.1%	5.8%	11.4%		30%	133%
	General Electric	309,107	-1.9%	2.9%	18.1%		52%	593%
	ALSTOM	11,958	-0.4%	5.9%	16.5%		14%	34%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협								
철도	현대로템	16,833	-2.7%	5.5%	21.8%		258%	809%
	ALSTOM	11,958	-0.4%	5.9%	16.5%		14%	34%
	Bombardier	13,615	-5.9%	19.1%	23.5%		70%	568%
	CNR	58,600	-1.7%	3.2%	-8.2%		-17%	-11%
	CAF	2,113	1.1%	0.8%	17.9%		46%	124%
	CSR	29,897	5.0%	5.5%	31.7%		16%	154%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2,244	4.9%	3.3%	4.1%		87%	251%
	KONE	34,739	-2.5%	-0.8%	2.2%		9%	45%
	THYSSENKRUPP	9,295	3.6%	26.0%	40.6%		296%	162%
	MITSUBISHI ELEC.	54,635	4.9%	6.6%	27.3%		64%	185%
	HITACHI	133,142	2.7%	7.2%	9.6%		12%	240%
	SHANGHAI ELEC.	20,379	2.4%	46.6%	75.3%		172%	214%
공작기계 / 기타								
공작기계	화천기계	51	-0.3%	5.8%	-0.5%		15%	10%
기타	와이지원	120	-0.6%	-6.3%	-14.7%		-3%	-10%
	S&T중공업	1,597	-5.6%	17.3%	45.7%		177%	660%
	Amada	4,033	2.6%	-0.4%	17.8%		23%	81%
	Moriseiki	2,913	8.0%	0.5%	-4.9%		7%	83%
	Jtekt	3,034	-1.1%	-5.3%	18.4%		40%	51%
	Okuma	1,569	5.5%	-0.3%	-5.4%		11%	36%
	Makino	1,860	-0.7%	-1.6%	-0.9%		84%	149%
	Gildemeister	4,272	0.6%	0.6%	1.7%		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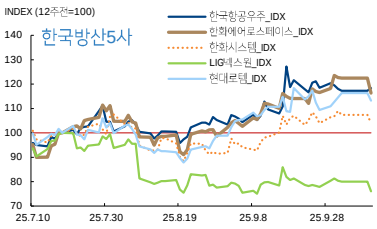
다올 기계 ChartBook

2025.10.12 [79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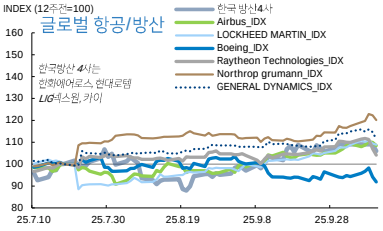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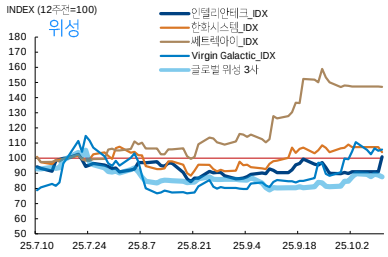
▶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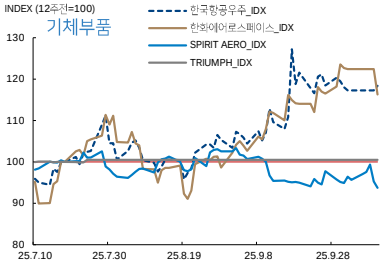
▶ 글로벌 방산/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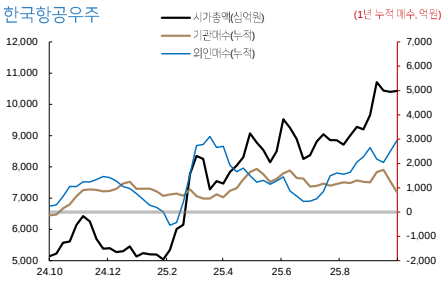
▶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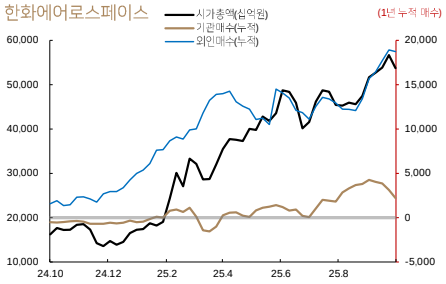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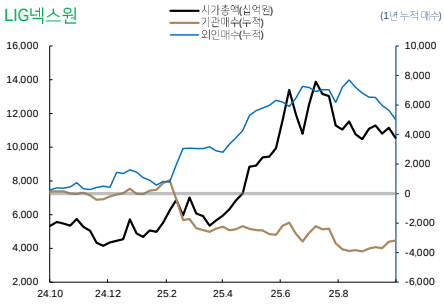
▶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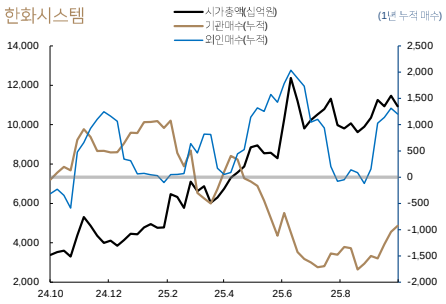


방위산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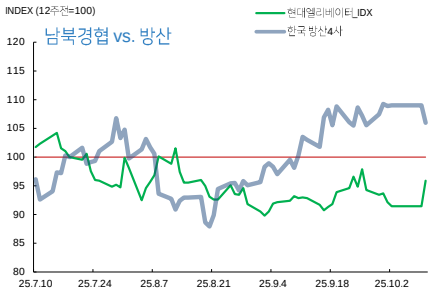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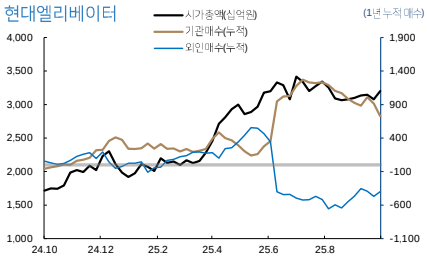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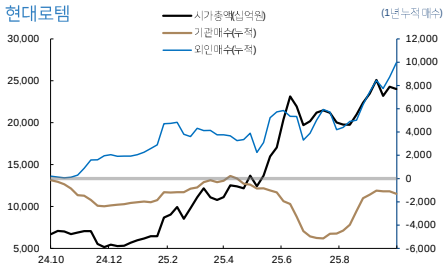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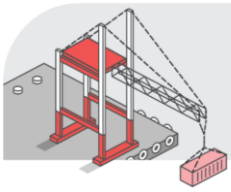


▶ 방산 vs. 경협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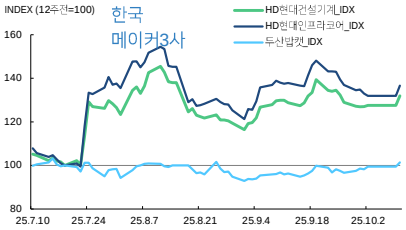
2025.10.12 [792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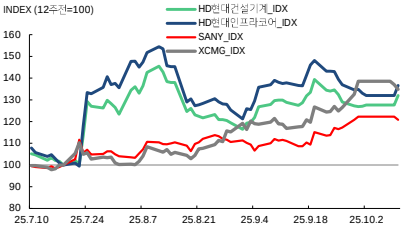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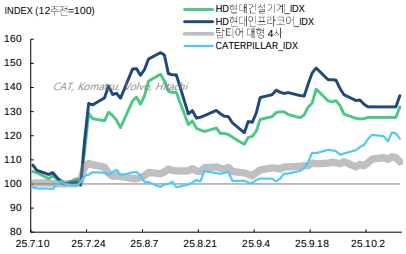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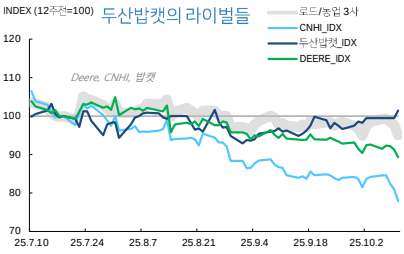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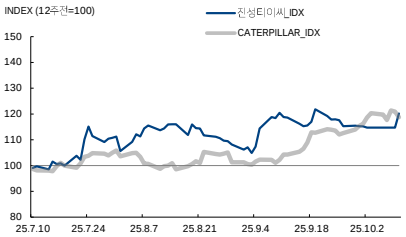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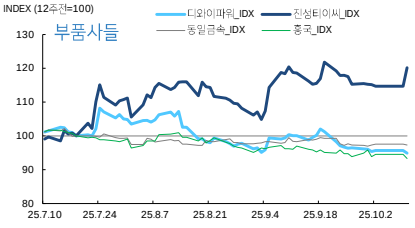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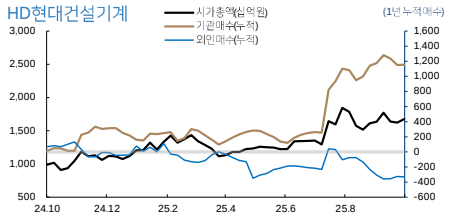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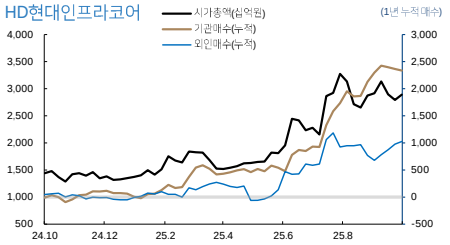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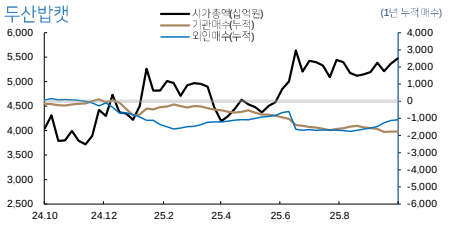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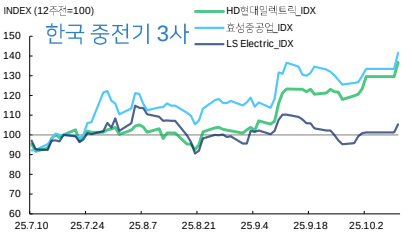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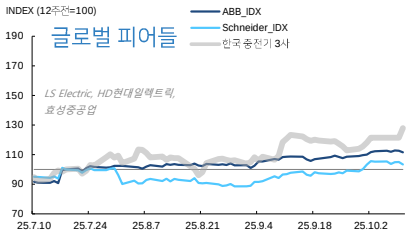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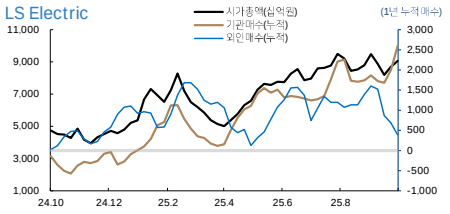
▶ 한국 중전기 3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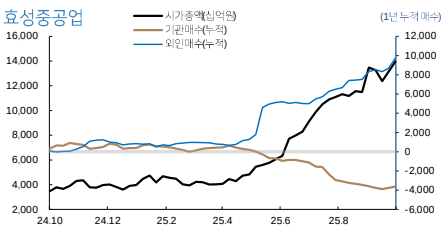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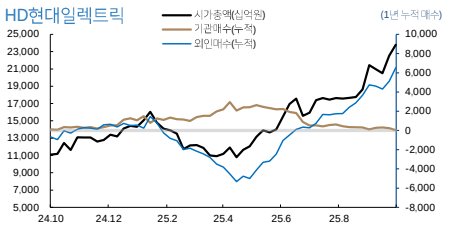
▶ 글로벌 피어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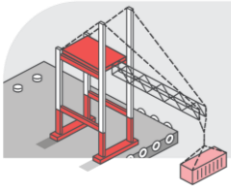


중전기 수급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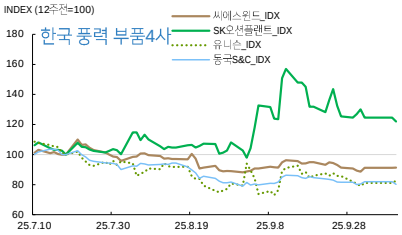
2025.10.12 [792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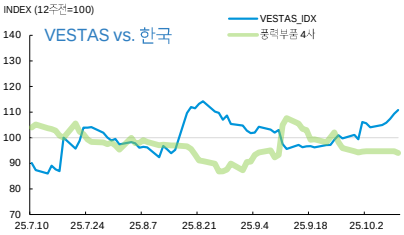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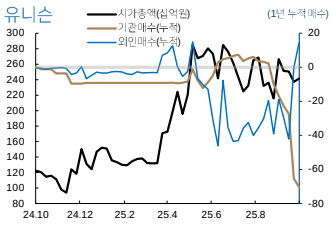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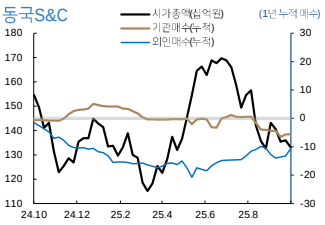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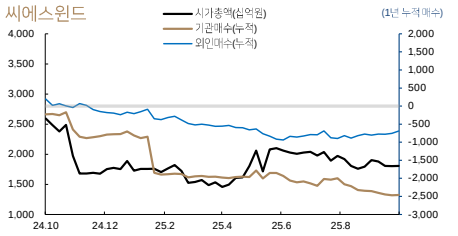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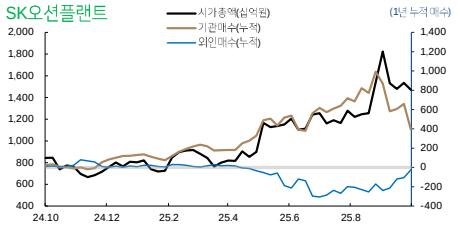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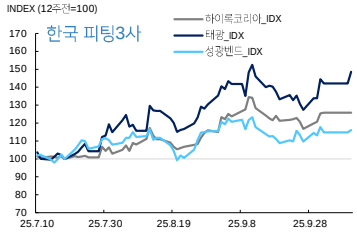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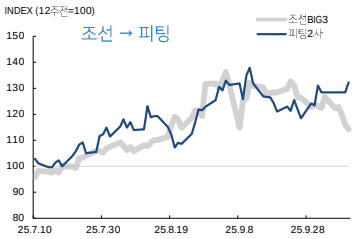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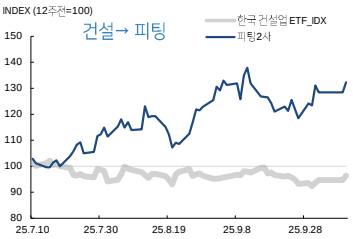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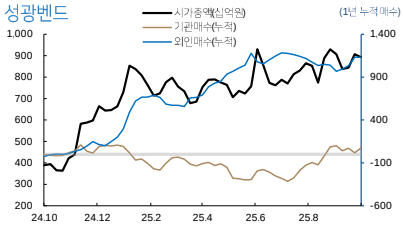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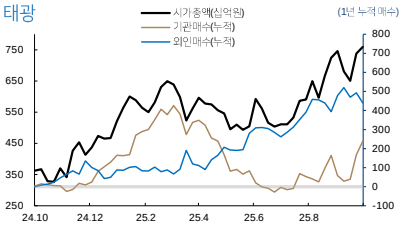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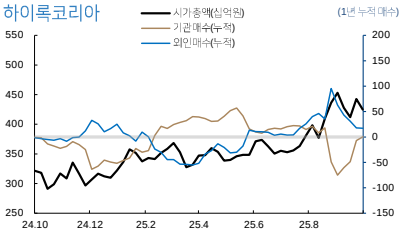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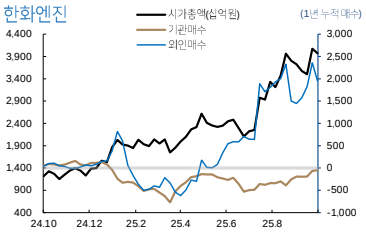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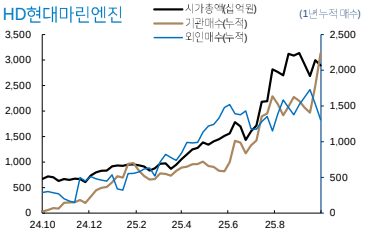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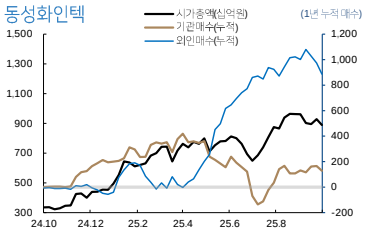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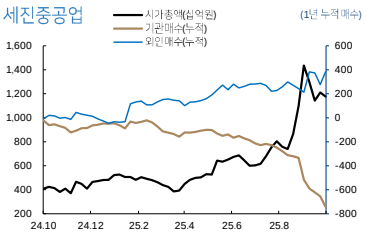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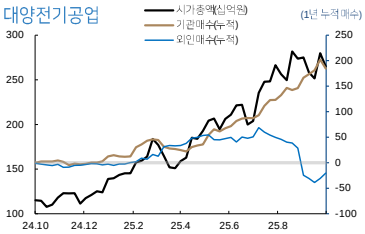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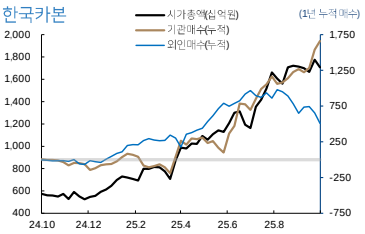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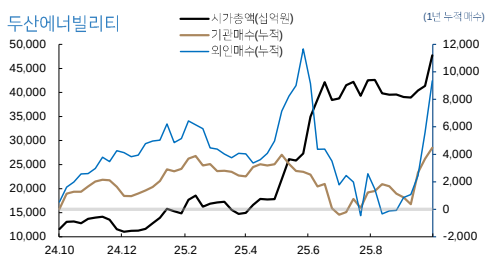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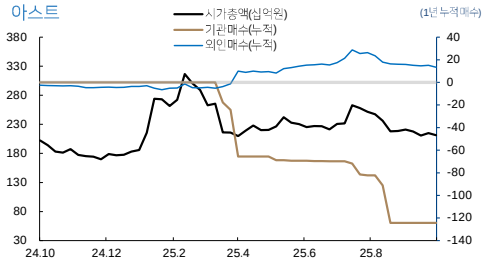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기타 기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90.9% HOLD : 9.1%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